‘신안 1004굴’ 연중 생산… 홍콩·유럽 수출 야심

신안수산硏, 개체굴 도입 상품화
‘1004굴’ 브랜드네임 특허 출원

유네스코 등재 청정 갯벌 활용

지역 꽃·홍어 등 축제 연계
개체굴 소비 활성화 모색도

신안군이 자은·비금·도초·하의면 등에 1004굴 전용 종자배양장 등의 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바다에서 나는 고단백 영양소 굴. 겨울뿐만 아니라 4계절 개체굴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수산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신상수 신안수산연구소장의 각오다.

신안군수산연구소가 지난 2018년 신품종인 개체굴을 도입해 1004굴로 브랜드네임을 출원함으로써 연중 생산자와 소비자가 굴을 판매·소비할 수 있도록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 유럽, 미주권 등 70% 해외 수출도 앞두고 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1004굴 소비 확대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1004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중 먹을 수 있는 신안 개체굴

신안군 압해읍 남세촌길 28-17. ‘신안수산연구소’라고 쓰인 안내 이정표가 눈에 띈다.

이정표를 따라 수산연구소로 들어가 보니 장화를 신은 남성들이 양성망을 들고 옹기종기 모여있다. 양성망에 담긴 것을 살펴보니 회색빛이 도는 개체굴이다.

신안군수산연구소는 지난 2018년 8월 민선 7기 수산분야 신규 고소득 양식품종 개체굴을 도입해 상품화하고 있다.

신안군이 도입한 개체굴은 참굴을 활용해 일반 개체굴과 3배체 개체굴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일반굴은 수확시기가 11월에서 다음해 1월로 한정돼 있지만 군이 도입한 개체굴은 생식기가 없어 독소가 발생되지 않아 여름철 등 연중 섭취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완전양식 방식이 가능해 인공수정·암수절개→부화관리→치패관리·70일→중간성장관리·90일→갯벌 종자 입식 후 2년의 양식기간을 거치면 상품 출하가 가능해진다. 신안군이 개체굴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해역적 특이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신 소장은 “타당성 검토 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울시 면적의 22배, 전국갯벌면적의 15%를 차지하는 신안 갯벌에서 개체굴 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외 사례에서 개체굴은 판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은 개체굴 수출국이면서 소비국가로 과잉생산으로 인해 출하가 정체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노르망디, 마렌 해역과 미국의 뉴욕·맨하탄 주변 해역에서 테이블식, 지주식 등을 활용해 양식하고 있어 과잉 생산으로 인한 출하가 정체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체굴 양식산업 확산으로 청년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로 확인돼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하나로 개체굴을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안 개체굴 세계 누빈다

신안의 개체굴은 지난 2021년 1월 강남·명동·대전 신세계백화점에 1톤 분량의 시범출하를 마쳤으며 1004굴 브랜드네임에 등록됨에 따라 내년 1월 홍콩 출하를 앞두고 있다.

신안군수산연구소가 신품종 개체굴을 도입해 1004굴로 브랜드네임을 출원했다.

생산량의 70%를 국외 수출을 목표로 유럽, 미주, 호주권 수출을 위해 패류생산해역 지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이다.

신안군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개체굴 소비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상수 신안수산연구소장은 “신안군은 1004개의 섬 곳곳에서 꽃과 홍어 등 수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며 “개체굴 판매 촉진을 위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판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편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굴 양식 희망자들에게 현장실습을 통한 재배 기술을 집중 지도하기 위해 1004굴 양식학교를 2019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홍일갑 기자

‘명품 수산인재 양성의 요람’ 신안 1004굴 양식학교 운영 ‘성과’

올 27명 등 총 108명 수료
6명 양식 시설 임대 앞둬
신상수 소장 “1:1 교육 주력”

신안군은 1004굴 국내·해외 입지분석을 통해 자은·비금·도초·하의면 등에 1004굴 전용 종자배양장 등의 시설을 구축해 1004굴 양식학교를 2019년부터 운영한 결과 1004굴 양식법을 터득한 108명의 수료생이 탄생했다.

신안군은 개체굴 양식을 놓고 생산자 입장에서 노동 강도가 낮고, 일반굴에 비해 빠른 성장과 높은 비만도, 사료나 약처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어업 경영비용 절감효과가 보장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소득보장형 양식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통판매측면에서는 양식어가들이 가내에서 소규모 처리장을 시설해 세척과 등급별로 선별·판매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홍콩 등 아시아, 유럽, 호주, 미주권 등 다양한 해외 소비국가가 있어 홍수출하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신안군은 개체굴 전용 종자배양장, 전용처리장시설, 중간육성장 시설 등을 구축해 종자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1004굴 양식학교 교육장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양식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자은면·비금면·도초·하의면 지역은 여름철 수온이 25도 이하로 유지되는 등 굴에 알맞은 생육환경이 뒷받침 되고 있어 폐사율은 10%에 머무르고 있다.

1004굴 양식학교에서는 이론 및 현장실습 기술을 집중 지도하며 수료생에게는 양식시설임대, 민간보조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한다.

신안 1004굴 양식학교 입교생들이 굴 치패 부착 양식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양식학교 운영 첫 해인 △2019년 1기·9명 △2020년 2기·7명 △2021년 23명 △2022년 42명이 수료했다.

올해에는 27명이 수료 예정이며 1·2기 수료생 가운데 6명에게 양식시설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1004굴 양식학교 수료생들은 현장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명품 1004굴 생산 방법을 배우게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1004굴 양식학교 수료생 최형우(50·도초면)씨는 “국내 대부분의 굴 양식방법은 지주식으로 자연 노출형태로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지만 태풍·강풍에 굴들이 소실돼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약점이 있다”며 “1004굴 양식학교에서 학습한 임의노출양식 방법은 투자비도 저렴하고 전복 가두리를 활용한 양식이 가능하며 태풍·강풍에 강하다. 굴 양식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1004굴 양식학교 입학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1004굴 양식학교는 입교생 전담 지도·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신상수 신안수산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1004굴 양식산업육성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굴 양식 밀식방지, 오염정화, 출하등급화, 임대사업·보조 지원 등을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제친환경 인증 ASC제도 취득을 통해 1004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권역별 법인화로 책임양식관리제를 도입하려한다. 행정상의 각종 지원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현장실무진들과 1:1 밀착교육으로 1004굴 양식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